

# 9월의 사양관리 포인트

김 성 호  
(진흥사로 영업부장)

## 1 기 상

	일 조 시 간		평균기온
	9월 1일	9월 30일	
서울	13시간 0분	11시간 52분	20.3°C
대구	12 " 58 "	11 " 52 "	20.5 "
광주	12 " 56 "	11 " 53 "	20.9 "
부산	12 " 56 "	11 " 52 "	21.6 "
제주	12 " 53 "	11 " 53 "	21.7 "

상기 도표에서 보는 바와같이 9월중 각 지방의 일조시간은 매일 약 2분간씩 짧아지므로 점등관리를 다시 점검해 봐야겠다. 또 평균기온은 8월에 비해서 약 5°C정도가 낮아지며 오후 2시~4시 사이의 가장 더운 시간에 만 유의하면 더위에 대한 피해는 최소한으로 줄일 수가 있겠고 하순부터는 최적온도를 유지하겠으므로 사양관리에 조금만 신경을 기울이면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달이기도하다. 그러나 더위에 지친 닭들이 자칫하면 산란저하, 털갈이 등으로 생산성이 크게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방심한 나머지 의외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

## 2 육계및 육성추의 관리 포인트

○ 이번 가을부터는 나도 모이통과 물통을 충분히 구비하여 양계를 하자.

양계인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보면 기가막힌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구나하는 느낌이 들 때가 한 두번이 아니다. "나는 102%의 육추를 했다." "한 마리도 죽이지 않고 키울 수 있다." "아직 질병에 시달려 본 일이 한번도 없다." "산란피크는 98%로 4개월간

지속중이다."—등등 마치 황당무계한 중국 무협소설을 읽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할 때가 종종 있다. 정말 사육관리를 잘하고 성적도 좋은 업자가 입심이 안좋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사업이 남에게 뒤떨어진다는 자학감에 사로잡힐 정도다. 뉴캐슬병에 걸려서 전멸 일보 직전에 있으면서도 쉬쉬하고 숨기다가 자신은 물론 사촌보다 더 가깝다는 이웃에게 막대한 경제상 피해를 입히게 되는 예가 허다한데 이런 풍토는 시정되어야 한다. 대부분 전문교육을 받지않고 양계업을 하는 우리 양계인들이니까 모르는 것이, 또 사육을 잘 못하고, 질병에 걸린 것이 흉이 될 수 없으니, 하고 있는 그대로 흥금을 털어놓아, 보다 현실적이고 보다 과학적인 방향으로 사양관리 풍토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자. 기술지도차 방문해 보면 어느 집에서든 사육수수에 비해서 사료통과 물통이 부족함을 느낀다. 한마리도 안 죽이고 키우는 기술을 갖고 있다고 천하제일의 손바람(?)을 내기 보다는 이번 가을부터는 밥그릇과 물통을 충분히 넣어주어 양계장내의 닭들이 "우린 주인 최고야"하는 칭찬을 하도록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해보자.

### ○ 백신접종

#### ① 각종 백신의 효능

현재 양계용의 백신은 생독백신과 불활화백신으로 나누어 다음 7가지 종류의 질병에 대한 백신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 1) 계두 백신(FP)
- 2) 뉴캐슬 백신(ND)
- 3) 계퇴척수염 백신(AE)
- 4) 전염성 코라이자 백신(IC)
- 5) 전염성 기관지염 백신(IB)

## 6) 전염성 후두기관지염 백신(ILT)

## 7) 마레크씨병 백신(MD)

이러한 백신의 효능에 대해서 전부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느 백신이든 장점과 단점이 있으며, 같은 백신이라도 제조회사에 따라서 효능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다. 백신의 면역 지속 기간은 대개 3~5개월간이나 백신의 접종일령, 접종시 닭의 상태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며 1회의 접종으로 일생 면역이 되는 것은 MD 백신과 중계에 사용하는 AE 백신 뿐이며 그 이외의 백신은 적어도 2회이상 접종하지 않으면 충분한 면역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외국에서는 MD+IB 혼합백신, ND+FP 혼합백신, ND+IC 혼합백신, 및 3가지 질병의 혼합백신 등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ND, FP, AE, MD 백신만 사용되고 있을뿐이다.

### ② 백신의 효과

백신은 특정 질병에 대한 면역을 형성하는 원(源)으로 백신이 직접 그 질병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백신 접종에 의해서 닭자체에서 면역을 형성하여 질병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백신의 효과에 대한 문제는 백신의 자체의 문제점과 닭 자체의 문제점으로 나눌 수 있다. 백신 자체의 문제점으로는 충분한 역가를 갖고 있느냐, 또 백신성분 이외에 닭에게 유해한 물질들이 들어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현재 백신은 역가와 안전성에 대하여 국가 검정을 거친후 사판되고 있으나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뉴켓슬 백신(B<sub>1</sub>)의 경우 무균종란에서 제조하고 있는 회사가 국내에는 없으므로 이로 인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으며 검정을 거친후의 보존방법도 2~5°C의 냉장소에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그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의문시 된다. 수송문제만 하더라도 제조회사 자체에서 상기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채 열차나 화물차 등으로 수송하고 있으며 각 취급소(가축약방등)에서 양계장까지의 수송중에도 양계업자가 그냥 가져 가고 있으니 접종시의 역가는 검정시보다 상당히 저하된다고 할 수 있다. 닭자체의

문제점으로는 백신 접종시의 닭의 상태가 가장 중요하며 백신의 효과는 닭의 건강 상태와 면역 상태(이행 항체등)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으로 면역형성 기간이 2~3주간 걸리기 때문에 이 기간이 지나기전에는 접종을 했다고 해도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또 같은 계군이 라도 개체차에 따라서 접종효과가 다르며 아직까지 규명이 되어 있지 않으나 역가 높은 충분한 항원을 건강계에 접종했으나 면역형성이 전혀 안된 예도 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백신접종 효과는 보통 70~80%정도이며 이는 접종방법, 접종시기, 환경위생, 사육기술, 닭의 상태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므로 좀 더 확실한 예방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연구 노력해야 되리라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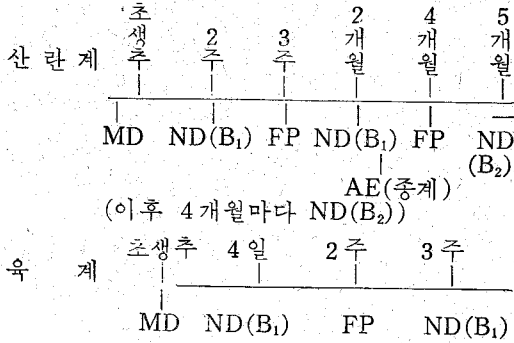
### ③ 합리적인 접종 프로그램

현재의 백신 접종 프로그램은 대개 뉴켓슬 병을 중심으로 짜여져 있으며 이 뉴켓슬 프로그램조차도 몇 가지가 있으나 한마디로 어느 프로그램이 가장 좋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산란계의 경우에는 뉴켓슬 프로그램을 기본으로 하여 계두 마레크씨병 등의 접종 프로그램을 짜고 또 중계장에서는 여기에다 뇌척수염백신의 접종을 감안하여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단 뉴켓슬백신 접종을 제외하고는 가능한 산란개시전에 전부 실시하여 산란중에는 스트레스를 주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육계의 경우에는 계두와, 뉴켓슬병—두가지만 으론 프로그램을 작성해도 좋으리라 믿는다. 30일령 전까지 격리육추를 하여 계두, 뉴켓슬 면역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자기농장 및 주위의 오염도를 충분히 검토하여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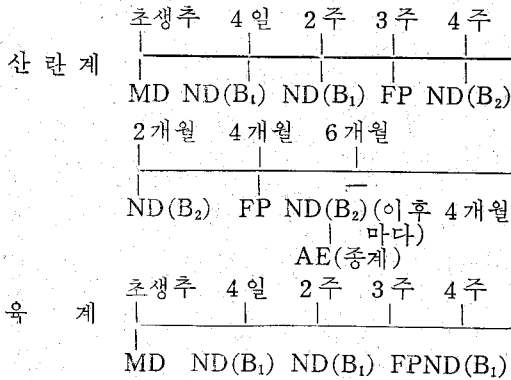
## 2 산란계의 관리 포인트

① 일조시간이 점점 짧아지므로 반드시 점등을 해 주어야 한다. 트레버모리스씨에 의한 산란에 필요한 일조시간이 최소한 14시간이라고 하나 일단 연장된 일조시간을 줄이면 14시간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산란기능이 저하되거나 절등시간을 절대로 줄이면 안된다. 우리나라

기본 프로그램



오염지역 프로그램



MD-마릭스병 백신  
 FP-계두백신  
 AE-계 뇌척수염 백신  
 ND-뉴캐슬병백신(B<sub>1</sub> 생독백신, B<sub>2</sub> 사독백신)

라 대부분 양계장의 사정으로는 16시간전후의 고정점등을 하도록 권하고 싶다.

② 여름철에 연변등으로 인하여 불결하기 짝이 없다. 계사내외의 대청소를 실시하고 충분한 소독을 실시하자.

③ 단백질 자원의 극심한 부족으로 인하여 계속질적으로 고전이 예상되는 현사료사정이므로 여름철의 고온에 의한 피로와 겹쳐서 자칫하면 환우계가 되기 쉽다. 어분이나 기타 단백질사료를 첨가하여 단백질량을 높여 주도록하고 음수용 종합비타민제를 투여하여 산란율이 저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

④ 봄추가 초산을 시작하는 달이다. 초산계의 사료섭취량을 조사하고 채식량이 너무 적거나 많을 경우 거래 사료공장의 기술진과 상의하여 관리상황을 시정해야겠다.

◎ 가축 예방약

◎ 치료제

◎ 소독약

◎ 사료첨가제

◎ 기타국내외약품

총판

상담수의사: 연 두 회

★ 가축질병상담

★ 지방주문환영

TEL 주간 97-8779  
 야간 96-9231

협성가축약품공사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654  
 청량리 오스카극장 앞,  
 한일은행 청량리지점 옆

